

# ASML 실적·머스크 언급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주목'

ASML 1분기 매출 87.6억 유로  
핵 고객사 비중 45%... 2배 넘게 ↑

삼성전자, 경쟁사 TSMC 대응해  
하이-NA EUV 장비 도입 검토  
머스크, AI5칩 설계 완료 언급



AI6, Dojo3 & other exciting chips in work.



일론 머스크 X계정 캡처.

기 22%에서 두 배 이상 뛰었다. 메모리 고객 비중 역시 절반을 웃돌며 AI 메모리 증설 수요가 장비 실적으로 본격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ASML 실적이 삼성전자 신규 팹 장비 반입이 실제 수치로 드러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삼성전자는 평

택 P4(4공장)를 차세대 HBM4용 1c D램 증설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P42 라인(Ph2)는 당초 파운드리 검토 라인에서 HBM4 전용 라인으로 중장기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본 공사는 올해 2분기 착수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중단됐던 P5 골조 공사 역시 재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며 평택캠퍼스 전반의 증설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HBM4가 핵심 축이다. 삼성전자의 전체 D램 생산능력은 월 65만 장 수준으로 기존 1c D램 라인은 월 6만장 규모에서 올해 말 20만 장 수준까지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HBM4용 증설 물량만 월 11만장 가량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BM3E에서 경쟁사에 내줬던 주도권을 HBM4에서 만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4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는 한편, HBM4E와 커스텀 HBM 등 후속 제품 로드맵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측면에서도 선단 공정 고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화성캠퍼스를 중심으로 하이-NA EUV 장비를 순차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대 반입에 이어 내년 상반기 1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총 투자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가 아직 양산용 하이-NA EUV를 들이지 않은 것과 비교해 삼성전자가 2nm 이하 선단 공정에서 선제적 포지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AI5 칩 설계 완료를 직접 언급하며 삼성전자와 TSMC에 감사를 표한 점도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공개한 시제품 사진 속 'KR2613' 각인을 두고 한국 생산 정황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는 삼성의 2nm 공정 계열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차기 AI6 테이프아웃은 올해 12월로 전망되며 이 역시 삼성전자가 수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 본격 양산 수주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메모리 중심으로 읽히던 삼성 반도체 AI 수혜 기대감이 파운드리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관련 포인트는 실제 고객사 확보와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HBM이 이미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까지 모멘텀이 붙을 경우 삼성 반도체 전반의 회복 기대감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 혼풍은 사실상 HBM과 D램 중심이었다"며 "ASML 장비 실적과 머스크 발언이 같은 시점에 겹치면서 시장의 시선이 파운드리까지 옮겨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1면 칩 가격 50% 인상...서 계속

## 김민석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 한 단계 도약 전환점”

(국무총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통합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정책·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규제 합리화와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우수한 인재와 세계적인 제조 역량, 풍부한 의료 건강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며 "모든 것이 제대로 결합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그간 분리 운영됐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주요 정책·사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규제 합리화 로드맵은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신속 시장진입 지원', '가치 기반 평가',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등 기본 전략을 토대로 총 2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최근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의 등장에 따라 한국형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기술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적 등재 방안을 모색한다.

이밖에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

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 전략', 'K-뷰티 산업 발전 전략'·'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허브-거점-개별 클러스터가 서로 연결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K-클러스터)도 조성한다.

기존의 산·학·연·병 주체의 투자계획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정보 통합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어디서든 연구장비·시설·컨설팅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활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대전·송도·원주 등 주요 8개 거점을 연계하고, 이후에는 전국의 클러스터와 민간 생태계까지 연계를 확장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16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27명 등 모두 44명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 차세대 D램 생산 확충 신규라인 증설 이어 기존라인 공정 전환도

가격 상승 흐름과 수요 확대에 맞춰 투자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P4 라인 장비 발주에 착수하며 10나노급 6세대(1c) D램 투자도 본격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에스아이, 씨엔지하이테크, 와이씨 등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는 당초 계획했던 파운드리 나노플래시 대신 차세대 D램 생산능력 확충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차세대 제품인 HBM4가 기존보다 더 미세한 공정을 요구하면서 10나노급 6세대(1c) D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c D램은 HBM에 적용되며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고성능 메모리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평택 신규라인 증설에 이어 기존 화성 P3라인과 17라인의 공정 전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형 공정을 최첨단 1c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해 전체적인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0조원 투자(시설·R&D) 계획을 확정 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90조4000억원) 대비 약 21.6% 증가한 액수로 사상 이래 최대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로직 다이 가격을 인상한 것은 TSMC로 물량이 집중된 상황에서 대체 생산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AI 반도체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면서 HBM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세종 12개 부처, 신용카드 대신 디지털화폐 사용한다

재경부,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하반기에 업무추진비 결제 추진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결제 관련해, 현행 신용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예금토큰)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세종에 자리한 12개 부처와 위원회·처·청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재경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시도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달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사업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예금토큰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다. 심야·주말 등 제한시간에 사용할 시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된다.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예금토큰의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졌고,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세종청사 단지에 입주해 있는 부처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각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면 사용가능 시간 및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다.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차현정 기자 hyeon@